

[자료집]

교회다운 교회! 함께 만들기

제5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 일시 : 2010년 4월 11일(주)

 _주일 연합예배 오전11:00

 _주제별 대화시간 오후2:00

■ 장소 : 복사골 문화센터 2층 아트홀, 5-6층 세미나실

■ 주관 : 예인교회

■ 주최 : 개혁교회네트워크(<http://cafe.daum.net/reformingchurch>)

자료집 목차

개혁신교회의 개혁적 교육은 가능한가?

1부 : 연합 주일예배(오전11:00, 2층 아트홀)

다함께 드리는 찬양		인도 김호곤 권사 ^{예인교회/세미나준비팀장}
찬송		역삼청년교회
기도		다같이
특송	영광의 왕 주 예수	최현락 목사(역삼청년교회)
설교	교회개혁의 지혜	성가대 ^{예인교회}
잠언 1:1-6, 예레미야 9:23-24, 전도서 1:1-10		
찬송		백종국 교수 ^{진주주님의교회사무장로}
광고		다같이
		항영수 집사 ^{개혁교회네트워크집행위원장}
축도		박창훈 목사(언덕교회)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합니다. 드리진 헌금은 개혁교회네트워크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2부 : 주제별 대화시간(오후2:00, 5-6층 세미나)

주제/진행자/발제자/장소			
01_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개혁		
진행 방인성 목사 ^{함께여는교회}	발제 백종국 교수 ^{경상대 국제정치학부}	514호	
02_교회분립 시기와 방법은?	교회분립		
진행 이승중 장로 ^{언덕교회}	발제 유계섭 목사 ^{주님의보배교회}	513호	
03_교회 건축, 한계는 없는가?	교회건축		
진행 한진용 장로 ^{디딤돌교회}	발제 박득훈 ^{언덕교회}	518호	
04_교회 분쟁 해결 방법은?	교회분쟁		
진행 김성학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발제 정운형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517호	
05_개혁교회의 교회교육은 어떻게?	교회교육		
진행 안해용 목사 ^{너머서교회}	교회별 사례발표	512호	
06_개혁교회를 위한 청년의 역할	청년		
진행 조미현 자매 ^{예인교회}	발제 최현락 목사 ^{역삼청년교회}	612호	

※당일 진행 상황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교 내용]

교회개혁의 지혜

잠언 1:1-6, 예레미야 9:23-24, 전도서 1:1-10

백종국 교수 진주 주님의교회 사무장로

_목상을 통해 얻은 바를 교회개혁의 동지들과 함께 나누길 원함

_지혜란?(⇔ 지식)

= 진리를 실천하는 능력 (하나님 = 표본)

1) 진리를 앎

2) 아는 바를 실천하는 힘

A) 교회개혁 : 참된 예배의 회복

_하나님은 악한 자의 예배를 미워함(잠 15:8)

_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기뻐하심(사 58:6-10, 미 6:6-8)

B) 교회개혁이란?

_표상으로 : 사람의 교회 → 주님의 교회(하나님의 속성이 보편적인 공동체)

_실질로서 :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인애(Kindness, Charity) : 나 보다 약한 자를 측은히 여기고 돕는 것(↔ 잔인, 냉혹)

1)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편애 (마 10:42,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2) 부한 자와 권세 있는 자에 대한 경고를 참조 (눅 16:19-31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3) 한국 교회의 문제 - 세속적 기준이 교회의 구성원을 갈라놓고 있음 (돈과 권세)

_교회도 돈이 있어야 섬기지...

_사회적 지위와 교회의 지위를 동일시(?)

-공평(Justice) :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불공평)

1) 저울과 되와 추의 비유

2) 각자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심(렘 17:10, 롬 2: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

(말 3:10-12, 십일조의 “복” : 노력의 결실을 보장함)

3) 한국 교회의 문제 - 구원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잘못 적용

_값싼 은혜를 강조 : 공평치 못한 하나님으로 전락

_무분별한 평등도 공평치 못함

-정직(righteousness) : 진실 되게 행하는 것(↔부정직)

1) 정직은 하나님의 중요한 본성

2) 거짓에 대한 징벌 (계 21:27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3) 한국 교회의 문제 - 주님을 위해 부정직하게 행한다? (건축법? 연말정산?..)

C) 교회개혁의 3가지 방법

: 사고 잦은 교차로의 비유

3대 개혁방안	교차로의 비유	교회개혁 사례
1) 긴급구난	피켓팅/앰블런스 대기	세습 반대, 상담소 운영 등
2) 제도개혁	차선 및 신호등 교정	모범정관 갖기 운동
3) 의식개혁	교통질서의식 고취	만인제사장설, 개혁 세미나 등

D) 주님의 역사하심에 의존하기

1) 분노의 통제

_의분(義憤)도 지나치면 유해하다(전 5:2, 딤후 1:7-9)

_자기의 의(義), 매개의 변증법 등에 유의

2) 시야를 넓게 가지기

_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전 1:9-10)

_과거와 현재에 대한 학습

_미래의 대안에 대한 개방적 태도

3) 종의 마음

_우리는 주인의 명령대로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 (눅 17:9-10)

[세미나_01]

내가 꿈꾸는 교회

백종국 교수(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나는,
우리 교회는,
이 땅위에서
복의 근원이고 싶다.

무엇보다 인애의 마음으로...

잔인과 냉혹이 기세를 떨치는 사막 같은 세상에서
여기에서 만큼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보살핌이 상식인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

잘못을 교정하더라도
애처로운 마음을 먼저 품는
예수를 닮고 싶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상대가 어떠한든 나는 나의 도리를 다하는
인애의 마음을...

이미 주인에게 10억 원의 빚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게 10원 빚진 자를
너털 웃음으로 보내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고 싶다.

아주 부족한 저 형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내가 그나마도 선택되었음을 아는
그래서
주제 파악을 잘한다고 소문나는
그런 교회를 가지고 싶다.

가장 효율적인 체제를 추구하지만
형제의 부족함을 안타까이 여겨
인내로 도울 줄 아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모두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분을 따르고 싶다.

정말, 간절히...

나는,
우리 교회는,
이 박복한 한국 땅에서
살아 숨쉬는 복의 근원이고 싶다.

[세미나_02]

분립개척 사례

- 제2차 분립개척을 중심으로 -

유계섭 목사 주님의보배교회

-모체 교회 : 두레교회(영등포구 당산동, 예장 고신, 오세택 목사 시무, 현 설립23년차)
 -분립 교회 : 주님의보배교회(김포시 고촌읍 소재, 예장 고신, 유계섭 목사 시무, 현 설립3년차)
 -참고 자료 : 두레교회 당회록, 두레교회주보, 분립개척준비위원회 1차, 2차 보고서, 두레교회요람,
주님의보배교회 당회록

1. 시작하는 말

- 1.1. 중립적 관점, 역사적(시간적) 접근 : 교회 내적 자료 공개와 정확한 통계 제시의 한계
- 1.2. 분립개척 추진 책임자의 경험(분립개척 준비단계의 두레교회 임시당회장, 분립개척 된 교회의 담임목사)

2. 분립개척의 기본적 준비 상태

- 2.1. 중소형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 2.2. 탄포리교회(현 나눔교회) 분립개척 경험(설립 2년 반인 1989년, 장소를 제공받고 담임목회자(정근두 목사)와 함께 전교인이 150여명인 상태에서 반수 이상 파송, 재정적 지원은 요구되어지지 않은 상태)
- 2.3. 분립개척에 대한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의 소망과 의지(교인 500명이 넘으면 분립개척을 한다는 교회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 교회 공간문제 등을 주제로 한 ‘열린마당’을 통하여)

3. 2006년 제2차 분립개척의 동기

- 3.1. 교회개척의 필요성(1989년 이후 교회개척에 진전 없었음, 예배당 구입과 소외계층 섬김)
- 3.2. 공간문제 대두(별도로 사역자 예배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예배실에 주일예배를 위한 여유 좌석이 없었음, 공간의 한계에 도달)
- 3.3. 교회설립 20주년을 감사하는 의미 있는 사역 모색
- 3.4. 소수지만 교회개척을 자원하는 가정들이 출현

4. 분립개척 진행 과정

4.1. 준비단계

1) 교회적 분립개척 결정(2004년 10월, 공동의회)

- (1) 당회는 분립개척안을 마련하여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 회부하고 공동의회는 ‘교회설립20주년

되는 2006년도에 분립개척을 하기로 하고 절차와 방법은 당회에 위임하기로 하다'로 과반수이상으로 결정

(2) 2005년 예산부터 분립개척준비금 예산 편성(일단 연3000만원)

2) 분립개척준비위원회 설치(2005년 5월, 당회)

(1) 당회 산하 교회설립20주년 준비위원회 아래에 분립개척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회의 지도 아래에 둔, 안수집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균형있는 청년들로 실재 활동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 부교역자 한 사람을 조력자로 배치)

(2) 과제는 분립개척의 목적과 정당성 정립, 사례 연구, 구체적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1차, 2차 보고서를 받음

(3) 구체적 방안은 준비위원회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당회가 직접 한 달간 기도하며 준비하여(교세조사 및 설문조사) 결정함

__교세조사 : 재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라도 교회에 출석하며 목회적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을 기준으로 청,장년(대학생 포함) 370여명, 영아, 유치, 초중고등부 140여명으로 총 510여명 임을 확인

__설문 조사 :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분립되는 교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음, 2/3 정도가 관심을 보였고, 반 정도가 긍정적 의견을 표현했음(1/3 정도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

__당회가 마련한 구체적 방안

-분립개척 지역 : 서울의 서부 지역(두레교회 기점으로)

-목회자 : 두레교회 교역자 중에서(정체성 문제)

-규모 : 세례교인 30-100명 정도(자립이 가능한 규모가 되면서도 교회에 너무 큰 짐이 되지 않도록).

3) 분립개척 핵심사항 의결(2006년 4월, 공동의회, 2/3로 가결)

(1) 개척장소 : 김포지역(교회개척이 필요한 지역, 근처에 참여가능 가정이 존재, 서울 서부권 중 건강한 교회 필요지역)

(2) 목회자 : 유계섭 목사(당시 부목사, 2005년 임시 담임목사, 당회장), 양 교회의 관계성 중시

(3) 예산 6억원 : 현실적 필요와 가용 재원에 따른 조정(당시 두레교회 1년 예산은 4억 규모)

-다른 사안들은 준비위원회의 보고서를 반영하여 하기로 함(예, 최소 장로 1명, 안수집사 2명, 권사 2명으로 분립교회 구성)

4) 소속 예정고신 경기노회에 분립개척 허락을 청원하여 허락 받음(2006년 4월, 경기노회)

4.2. 추진단계

1) 분립개척추진위원회 조직(2006년 5월, 당회)

__당회원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선임 장로), 준비위원회위원장, 분립개척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던 권사와 서리집사도 참여시킴, 실제적으로 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 파송될 목회자와 조율하여 추진하도록 함)

2) 분립개척교회 공간마련(2006년 5월, 추진위원회)

__김포시 고촌면(서울과 김포 경계지역) 야산 내 대지포함 약700평 계약체결(주택의 농업용 건물 존재,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은(4억여 원) 분립되는 교회에서 감당)

3) 분립개척 지원자 모집(2006년 7월, 당회)

__첫 번째 주일과 세 번째 주일 이 차에 걸쳐 지원자를 모집하기로 결정하고 진행

(1) 1차 모집 - 12가정이 먼저 지원(목회자 포함, 장로 1명이 자원하여 당회에서 파송하기로 결정)

(2) 2차 모집 - 파송될 목회자의 분립개척교회의 비전을 듣고 15가정이 추가로 지원(장로 1명이 추가 지원하여 당회에서 한시적으로 파송하도록 함)

-장소에(서울 서부권) 상관없는 고른 지원자가 있었고 서부권에 거주하는 대부분에 가정들이 참여함(60세 이상 참여자는 없었음)

4.3. 분립단계

- 1) 지원자 가정 교회개척 준비모임(2006년 8월)
- 2) 파송예배(2006년 8월 마지막 주일, 파송 인원 98명)
- 3) 첫 예배(2006년 9월, 임시 예배처를 2개월 사용)
 - (1) 기본 조직교회 구성(목사, 장로, 안수집사)(2) 자립적 재정 운영 가능(3) 예배공간 소유
- 4) 주님의보배교회 설립예배(2007년 4월, 설립참여자 115명)
 - (1) 현재 독립적 교회운영(행정적, 재정적, 목회적)
 - (2) 독자적 비전과 규칙, 운영 방식 마련 과정
 - (3) 제1차 분립교회와 함께 세 교회가 일년 일회 연합예배(두레교회 설립일) 을 하고 공동사역 모색

5. 두레교회의 주님의보배교회 분립개척의 특징

5.1. 두레교회는 전통적 교단소속 교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개혁적 교회, 김소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교회

5.2. 제1차 분립개척의 경험을 긍정적 적극적 측면에서 고양시킴(공간문제 배려)

5.3. 당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적인 공식적인 의결과정을 거쳐 전교회가 함께 한 헌신적 교회개척(교회중심의 교회개척, 교회의 젊고 중추적 역할을 하던 교우들이 다수 참여)

5.4. 분립개척에 대한 담임목회자의 의지와 적극적 지원, 분립되는 교회의 목회자의 판단에 주요사안들을 위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함

6. 맺는 말

6.1. 교회(분립)개척

_영혼 구원과 건강한 성장이 목적(수적 기준은 이 목적에 종속)

_하나님의 축복(교회성장과 성숙), 현 두레교회는 수적으로도 분립개척 이전 상태를 회복, 현 주님의 보배교회는 파송된 교우들의 반 수 가까이 새로운 교우들이 유입됨

6.2. 교회개척의 시기

_준비와 적절한 시점 그리고 헌신적 노력 필요(시점은 만들어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점 있음)

6.3. 교회개척 방법

_교회중심의 개척(전체교우들의 참여), 공개성과 투명성은 물론 영적 도전과 믿음 성숙의 기회가 되도록.

_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부족한 것이 교회개척, 분립개척은 효과적인 교회개척임에 틀림없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다시 도전할 만한 바람직한 교회성장과 교회성숙의 방편이며 두레교회와 주님의보배교회는 서로 협력하며 이 거룩하고 시대적인 영적 도전을 계속할 것임

[세미나_03]

교회 건축, 한계는 없는가?

박득훈 목사^{안덕교회}

자체 교회건물이 아예 없어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례로 2008년에 시작된 촛불교회를 들 수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현장에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촛불교회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2009년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하자 매주 목요일 밤이면 촛불교회는 용산참사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스도인들이 주기적으로 고난의 현장에 모여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기를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모임 자체를 교회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성전보다는 성막 모델에 가깝다 할 것이다. 가나안을 향해가는 여정 속에 존재하는 교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교회를 보편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일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교회는 다양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고난의 현장을 찾을 뿐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모임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자라가야 한다. 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적당한 규모의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런 건물을 건축 혹은 구입을 통해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혹은 학교시설처럼 특정한 날만 사용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교회건축에 한계가 없느냐이다. 즉 성도들이 몰려든다면 그 규모에 걸맞게 얼마든지 큰 교회건물을 건축해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바로 이 질문을 지금 2100여 억 원 규모의 사랑의 교회 신축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 동안 건물보다 사람을 더 강조해온 사랑의교회 성도들의 94.2%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필자가 사랑의교회건축 중단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그 교회 정문 앞에서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더 이어지지 않았지만 필자가 상상해보면 ‘자기들이 뭘데... 무슨 벌을 받으려고 저러나...’라고 말했을 것 같다.

그러나 교회건축엔 분명히 한계를 두어야 한다. 물론 그 한계를 예컨대 ‘최대 1000석 규모까지만 된다.’는 식으로 수학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구체적 한계는 각 교회가 주님과 교회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성도들 간 의견을 소통하면서 스스로 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기준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 한계를 설정할 때, 교회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신학적 신앙적 논점들이 있다.¹⁾

1. 건강하지 않은 교회성장

우선 건강하지 않은 교회성장을 교회건축의 정당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초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너무 쉽게 성도들의 수가 증가한 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라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종종 초대예루살렘교회에서 그 신학적 근거를 찾고 초대교회를 메가처치의 전형으로 간주한다. 초대교회는 3000명에서 5000명 규모의 제자들이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메가처치를 쉽게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요, 하나님의

1)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랑의교회 건축을 중심으로 하여 글을 썼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말씀을 뒤트는 전형적인 예라할 수 있다. 우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단 시간 내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목숨을 걸고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겐 쓰디 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이었다(행 2:14-41; 3:12-26).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대형 교회들의 성장과정을 보면 그 기본 동력이 조엘 오스틴의 『궁정의 힘』으로 대변되는 달콤한 기복신앙 혹은 승리주의신앙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껍데기는 분명히 정통기독교인데 내용은 맘몬주의적 요소로 가득하다.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뉘엿하는 것으로 폄하된다. 이런 류(類)의 값싼 메시지에 혹해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감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과 동일시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대한 모독이다.

둘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사적 소유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행 2:44-45; 4:32). 물론 예루살렘교회 형편이 오늘 현대교회의 형편과 다르기에 반드시 문자적으로 동일한 소유와 삶의 형태를 취해야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덜 내놓고, 더 부하고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어떤 이들은 대형교회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회개의 촉구 그리고 은혜의 체험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정성은 단지 언어로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사적 소유권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행 4:33-34).

셋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적 나눔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모임장소 마련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았다. 필요하면 성전에도 모였고 가정에서도 모였다(행 2:46; 3:11). 성전에서 쫓겨나면서는 주로 가정 중심으로 모였다(행 12:12). 바울서신에 나타난 초대교회도 가정교회의 모습을 띠었다는 것이 중론이다.²⁾ 그런데 오늘날의 대형교회는 공동체적 나눔보다는 교회건축에 더 우선권을 둔다. 심지어 옥한음 목사마저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랑의교회는 교회건축을 위해서는 2000억 원을 현금으로 모을 수 있지만 선교와 사회봉사를 위해선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임을 자인하였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한국교회갱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교회로서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교회성장이 자동적으로 교회건축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만일 교회성장이 복음에서 빛나간 결과라면 거대한 교회건축을 기획하고 약정현금을 독려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2. 승리주의의 길 대(對) 십자가의 도

앞서 잠시 언급한 왜곡된 승리주의의 길을 가기 위해 교회건축을 꿈꿔서는 안 된다. ‘교회건축을 통해 더 큰 규모의 교회를 만들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교회건축의 신앙적 신학적 정당성은 상실되고 만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미래 즉 하나님나라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 승리를 믿음을 통해 현재 속에서도 맛보고 살아가는 존재다. 현재 경험하는 승리란 스테반의 삶이 아름답게 보여준 것처럼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기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돌에 맞아 고통스럽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자기에게 사정없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다. 하나님나라는 바로 그런 힘없음의 능력을 통해 역설적으로 아름답게 확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다’고 선언한 것이다(고전 1:23-25).

그런데 왜곡된 승리주의는 이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편다. 리처드 마우가 잘 정리한 것처럼 빛나간 승리주의자

2) 빈센트 브래닉 지음, 홍인규 옮김,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UCN, 2005)

들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증거 하는 최선의 길은 승리자의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금 여기에서 승리의 상급을 요구’하는 것이다.³⁾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나라의 일을 제대로 해서 승리를 쟁취하려면 규모를 확대하고 힘을 구축해야 한다고 믿는 점이다. 슬프게도 옥한음 목사 자신이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교회가 진짜 사회를 위해 하나님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인프라를 위해 투자하고,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축적된 힘을 사회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선교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요. 이거 지난 우리 3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증명했잖아요.⁴⁾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승리주의적 비전을 갖고 계셨다면 그는 복음서에 나타난 그의 삶의 궤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패착 중 패착이다. 그래도 제자들만큼은 예루살렘의 수재 중 택했으면 좋으련만 어둠의 땅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부르셨다.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삶을 자초하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힘없는 길을 걸어가셨다고 불의의 세력을 조용히 비껴가신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굳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법을 억압적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유대교 지배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하셨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의 통치세력을 강도, 장사꾼으로 규정하면서 성전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셨다. 그러곤 힘없이 그들의 손에 의해 빌라도 법정에 넘겨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다. 실제로 시작해서 실제로 끝난 슬픈 인생이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그 슬픔은 빗나간 승리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동과 말에 힘이 있는 분이라고 믿었고 그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 처형 앞에서 사정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은 애초부터 힘으로 하나님나라를 펼쳐갈 마음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힘없으심을 통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일구어가길 원하셨다. 하여 예수님은 장밋빛 승리주의 환상이 깨져버린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눅 24:26);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로 예수님은 이사가야 이야기한 여호와와의 종의 길을 가셨다. 그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보듬는 종의 길을 가다가 결국 세상에선 아무런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사 42:3; 49:1-6)..

그런데 큰 규모와 큰 힘에 기대어 하나님나라를 이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있는 신축부지에 나무 십자가를 꽂아 트랙을 만들어 거룩한 땅 밟기를 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교회건축은 일정 정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승리주의적 환상에 젖어 있는 건축이라면 그 신앙적 신학적 정당성은 전혀 없다. 그런 건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치열한 회개의 길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3. 부자청년의 길

교회건축이 부자청년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그런 건축은 한계를 넘는 것이다. 부자청년은 실제로 하나님보다 부를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자청년처럼 자신을 속일 수 있다. 사랑의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예다. 사랑의교회는 교회건축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여 왔다. 작년 12월 19일 교회신축부지에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갱신연합단체인 한목협과 함께 빈곤아동들에게 보낼 선물포장식을 하였다. 그런가하면 올해 1월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신교 NGO와 선교단체를 위한 기존 교회건물의 리모델링, 향후 3년간 한국사회와 한국 개신교계를 위한 120억 지원 그리고 아이티 복구사업을

3) 리처드 마우 지음, 홍병룡 옮김, 『무례한 기독교』 (IVP, 2004), 171-2 쪽.

4) 윤희운, ‘사랑의 교회 건축, 옥한음 목사의 진짜 생각은?’ 『뉴스앤조이』 인터넷판.
<http://www.news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31>

위한 100만 달러 모금을 약속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사랑의교회의 초대형교회건축이 오히려 교회갱신을 비롯한 하나님나라 운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대표해온 위상을 잃지 않기 위한 안쓰러운 몸부림이다. 사랑의교회는 겉으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초대형교회 건축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이다. 그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의교회는 교회건축을 위해선 2000억 원의 헌금을 약속할 수 있지만 사회봉사를 위해선 결코 그리할 수 없는 교회라는 점이다.

예수님께서 사랑의교회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부자청년에게 대하셨듯 대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부자청년을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같은 부자였던 삭개오에게 요청하지 않았던 바를 그에게 매우 냉혹하게 요구하신다(막 10:21);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는 예수님의 간곡한 사랑의 요청을 수용하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만다. 아마 그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긴 하지만 세상을 전혀 모르는 너무 이상적인 분이시구나 하며 아쉬워했을지 모른다. 예수님은 사랑의교회에 이렇게 요청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교회건축에 드는 2100여원 모두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려무나.’

3. 말씀을 혼잡케 함

교회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기 시작하면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후 2:17). 교회건축에 인간의 추한 욕망이 경건한 모양으로 침투해들어간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가장 오용되는 성경용어는 성전이다. 교회건물 건축을 성전건축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금전적 헌신의 동기를 부여하려고 한다. 사랑의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성전건축이란 표현에 대한 사랑의교회 건축위원회의 해명을 보자.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구약적이고 유대교적인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쉽게 건축을 하면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성전건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도들이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특성을 나타낸 실용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⁵⁾

건물자체를 구약적 의미에서 성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예배와 사역들 때문에 건물을 성전으로 부른다는 이야기다. 성전에 대한 구약적 이해를 교정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성전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사랑의교회 H장로가 거룩한 땅 밟기에 참여했던 소감을 밝힌 글에 잘 드러나고 있다. ‘...아직은 어떤 모습도 어떤 그림도 없는 것 같은 황량한 땅, 우리만의 교회나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이 있는 거룩한 전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염원이 있기에 감히 우리는 성전터라고 부르는 것은 아닐지.’⁶⁾ 여기엔 자신들은 그 건물 안에서 언제나 거룩한 예배만을 드리고 그 건물을 통해 거룩한 비전을 실현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담겨져 있다. 실로 위험한 영적 상태다. 거대한 건물이 있어야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고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아예 모르거나 외면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안에서 거룩한 행위를 하면 건물자체도 거룩해진다는 사고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해도 그러면 왜 굳이 교회건물만 성전이라고 부를까? 예배와 거룩한 활동이 진행되는 개인 집과 회사 건물은 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그 이유는 명백하다. 교회건물을 꼭 건축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쉽게’ 건축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사랑의교회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져야 한다. 경건과 거룩으로 가장된 욕망의 탈을 벗고 맨 몸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

둘째, 앞서 언급한 소위 ‘거룩한 땅 밟기’ 운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사랑의 교회 측의 공식적인 설명을 찾을 수가 없어 필자가 나름대로 이해하자면 창세기 13:17, 신명기 11:24 그리고 여호수아 1:3에서 유래

5) 사랑의교회 건축 사이트 게시판 ‘성전이란 용어 사용에 대하여’(http://sgmc.sarang.org/)

6) 사랑의교회 건축 사이트(http://sgmc.sarang.org/agora/agora_03_view.asp?db_idx=45262§ion=W001)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발바닥이 닿는 곳을 다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교회건축부지에 적용해서 그 부지를 밟고 다니는 것을 거룩한 땅 밟기라고 명명하는 것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신, 공동체 전체를 위한 신앙적 삶의 터전으로 거룩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땅에 둘러졌던 모든 속성이 그리스도께로 이전되었다. 즉 장소의 거룩성은 ‘그 사람’(the Person, 즉 그리스도)으로 옮겨졌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엔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 땅이 지니고 있던 신학적 윤리적 의미와 기능 자체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구약시대에 땅에서 사는 의미는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으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구약시대 땅에서 거하며 누렸던 신앙적 특권과 지위를 누리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약시대에 땅은 경제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땅을 소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사회적 삶을 영위해나갈 권리가 있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 권리를 잃은 사람은 희년이 되면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한 땅의 기능은,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성도들의 온전한 사귄(koinōnia)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도들의 사귄 안에서 그들은 경제사회적 삶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⁷⁾

이렇게 볼 때 교회건축부지를 여전히 구약시대가 종결되지 않은 양 거룩한 땅으로 간주하고, 밟으면 우리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고, 교회 내 사귄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요즘 한국사회에서 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그 오류는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땅이 없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 비싼 땅을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화려한 교회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일’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랑의교회는 11월 15일과 22일을 건축 헌금주일로 정하고 건축헌금을 약정하도록 하였다. 약정헌금 총액이 1300억 원이 되어 목표를 넘겼다. 이에 오정현 목사는 11월 29일을 할렐루야 주일로 정했다. 놀라운 일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심각한 신학적 신앙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건축을 위한 약정헌금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겠는가? 아마 하나님은 귀를 막고 너무나 괴로워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주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실천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난다. 그러나 주일에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 교회의 업적을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 날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일이 아니다. 이렇게 교회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면서 까지 추진된다면 그것은 한계를 넘겨도 한참 넘긴 것이다.

4. 권력집중의 위험성

교회건축을 통해 목회자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다면 이 또한 교회건축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교회건축은 음으로 양으로 목사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게 되고 교회건축이 완성되면 성공가로서의 권위를 지니게 된다.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면 그 권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된다. 사랑의교회 건축추진과정에서 그런 현상은 명백히 드러났다. 오정현 목사는 예배시간에 교회건축반대의견을 제시한 한 교인의 개인 블로그에 들어가 백기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절필을 선언했다.

7) 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신학적 이해를 위해선 크리스토퍼 라이트 지음, 김재영 옮김,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IVP, 2006), 251-292쪽을 참조하라.

그런가 하면 사랑의교회는 교회건축을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만으로 추진하다 절차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 1월 10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압도적 찬성으로 추진 받았다. 그런가하면 1996년 12월 1일 당회원의 결의로 채택된 정관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 1월 31일 공동의회를 열어 역시 압도적 찬성으로 아예 새로운 정관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제기되었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 소위 절차 세탁을 완료하였다.

사랑의교회 건축이 형식적 차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그리고 신앙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선 절차상 하자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진정으로 민주적이지 않았다. 사랑의교회 핵심지도층은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일체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제시된 건축반대의견을 경청하기는커녕 강압적으로 묵살하였다. 둘째, 절차 세탁의 완료는 사랑의교회의 슬픈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를 방불케 하듯(렘 5:31), 지도자들은 권위주의적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고 교묘한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건만,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지도자들을 좋게 여겨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보낸 것이다.

합리적이고 영민한 엘리트들이 준비할 사랑의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부조리한 절차세탁이 가능한가? 그것은 건축추진을 전후로 해서 담임목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때문이다. 그 권력은 교회건축이 완성되면서 더 커질 것이 불분명하다. 과도한 권력집중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더 강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교회건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5. 형제교회와 사회에 대한 배려

설사 교회건축이 꼭 필요하고 신학적으로 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사랑의교회 신축부지가 자리 잡고 있는 서초역 부근의 군소교회들은 심각한 위기, 심지어는 존폐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 좋은 교회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부실해서 경쟁력이 없는 작은 교회들이 퇴출된다면 하나님나라 전체로 볼 땐 좋은 일이 아니냐고 생각할 이들이 있을지 모른다. 아마 그들은 사랑의교회 건축을 비판하는 주변 군소교회들이 배 아픈 병에 걸렸다고 평가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의 글 중 한 대목을 소개하고 싶다.

... 개인·기업·자치단체·교회 등은 모두 자유로운 사회의 자유로운 개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의 일원이다. 공동체의 일원은 공동체의 동질감이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힘없고 가난한 구성원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에 사로잡히면 그 공동체는 전체가 불안해진다. 교회는 어떤 구성원보다 공동체 의식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는 탈(脫)세속의 성격 때문이다. 개인이나 기업은 어느 정도 자신을 자유 속에 방목(放牧)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교회는 탈세속의 존재여서 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세속의 불완전을 메워 보려 교회에 가고 성당에 가고 절에 간다. 종교가 세속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왜 그곳에 가는가.⁸⁾

부끄럽지 않은가? 교회의 수준이 중앙일간지 논설위원의 상식적인 기대에도 못 미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에선 대형마트가 어느 지역에 들어서려고 할 때, 기존의 중소형 상가가 감수해야 할 손실을 산출한다고 한다. 후자의 기존 수익이 10% 이상 하락하면 대형마트의 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을 섭섭해 하거나 억울해 한다면 정신 나간 일이다. 교회건축이 자기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해도 이웃교회에 감당키 어려운 피해를 주거나 사회에 큰 실망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한계를 넘긴 것이다. 그러므로 포기해야 한다.

맺음말

8) 김진, '2100억 교회와 세종시' 중앙일보 인터넷 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61279)

교회건축 현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한국교회의 건강상태를 대략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적당한 한계 내에서 교회건축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적절한 한계를 넘을 때, 교회는 진정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크고 화려한 교회건물을 짓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예수 믿자, 헌금하자, 교회 짓자!’ 그러니 한국교회가 갈수록 한국사회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건축의 한계선을 분명히 그을 줄 알아야 한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성장을 교회건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승리주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교회건축을 시도해선 안 된다. 교회건축이 부자청년의 길로 가는 것이라면 중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흔잡케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교회건축을 추구해선 안 된다. 과도한 권력집중을 가져오는 교회건축은 철회되어야 한다. 교회건축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해도 이웃교회와 사회에 폐해를 기친다면 시도해선 안 된다. 건강하게 성도가 늘어나 현재의 건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 교회건축보다는 교회 분립 등의 다른 건강한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세미나_04]

교회 분쟁 해결 방법은

정운형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1. 한국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구조적 원인 - 소수에 집중된 권한

1) 목사의 권한 독점에 의한 부작용

2) 목사와 장로들의 헤게모니 싸움

2. 2009년 교회문제상담소 상담 통계

1) 총 상담 건수

_방문 상담 : 39건/61회(2007년 31건/35회, 2008년은 34건/53회)

_전화 상담 : 152회(2008년은 138회)

2) 월별 상담 회수(전체, 차수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회	3	4	4	6	4	3	11	3	4	8	4	7	61

3) 계속 상담 여부

항목	전년도 계속 상담 건수	신규 상담 건수
건	총 9건	총 30건

4) 교단별 분류(교회별)

교단명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감	기하성	기침	기장	예장고신
건	9	9	4	2	2	2	2
교단명	합동정통	루터	예장합신	합동전통	예장대신	기성	기타
건	2	1	1	1	1	1	2

5) 상담 진행 차수별 분류(교회별)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건	24	3	2	5	5

6) 상담(제보) 내용(중복 표기)

: 직접적 원인이 되는 내용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

내용	건수(%)
담임목사에 의한 독단적 운영	27건(69.2%)
담임목사에 의한 재정전횡(유용, 횡령)	16건(41.0%)
저주설교 및 표적설교	10건(25.6%)
담임목사의 과도한 사례비	9건(23.0%)
문제를 제기하는 성도들을 마녀사냥식 신천지 물기	7건(17.9%)
담임목사의 성문제	7건(17.9%)
예배당 건축으로 인한 문제	6건(15.3%)
담임목사직 세습(족벌경영)	4건(10.2%)
교단문제(노회, 총회, 지방회 등)	4건(10.2%)
목사의 개인적 문제(사기, 채무, 폭행)	3건(7.6%)
설교카피	2건(5.1%)
이단적 설교	2건(5.1%)
직분자 임직관련 문제	2건(5.1%)
기타(미자립교회 불법 통합 건, 재산권 분쟁, 목사의 학위)	3건(7.6%)

7) 후속조치 분류(중복 체크)

내용	건수	비고
법률자문	12	담임목사 해임, 재산권, 선거법, 횡령, 사기 등
면담 및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발송	13	무응답 1건
피제보자 및 증인 면담	10	3자대면 포함
언론제보	7	뉴스앤조이
법원에 의견서 제출	3	
전문가, 경험자(이전 내담자)와 면담 주선	5	정관컨설팅, 법률진행절차, 교사로 조직 등 자문
세미나 및 설교	15	
교회 재정 결산자료 감사	1	자료 검토 후 감사의견
이슈파이팅(기자회견)	2	제자교회

※이 자료는 전화 상담을 제외한 방문상담에 대한 통계입니다.

3. 분쟁 종결의 3가지 유형

1) 목사 불신임 가결형

2) 합의/분립形

3) 개혁측의 교회 이탈

4. 분쟁 해결의 장애 요소

1) 노회(지방회) 등 상회

2) 교회의 재산

3) 감정싸움으로 변질(고소남발)

[세미나_05]

개혁교회⁹⁾의 개혁적 교육은 가능한가?

이진오 전도사^{예인교회}

들어가는 말

발제자는 지난 7년간 2곳의 개혁적 교회를 경험하고 있다. 한 곳은 '언덕교회'로 집사로서 4년을 섬겼으며, 또 한 곳은 '예인교회'로 교육 전도사로서 3년째 섬기고 있다. 이 두 교회를 섬기면서 개혁적 교회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한국교회와 사회에 대한 그만큼 큰 책임감 또한 가지게 된다.

특별히 3아이를 가진 아버지로서, 또 자라나는 다음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도사¹⁰⁾로서 개혁교회의 교육에 대해 그만큼 민감하고 또 그만큼 책임감을 느낀다. 본 발제문은 발제자가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2교회를 섬기며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시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혁교회의 교육방향과 내용에 대한 작은 제안이다.

개혁교회의 교육 현황

발제자가 경험한 2교회의 교회교육¹¹⁾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방향과 효율적인 교육내용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었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각된다.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선택해 온 것이 아니라 개혁적인 교회를 선택한 부모를 따라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와 달리 이들은 예전 교회에 특별한 불만이 없고, 오히려 활동했던 내용을 중도 포기하거나, 친구들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을 가진 경우도 많다.

-청년의 경우 기존 아이들은 부모들과 달리 개혁적인 의식이 없고, 개혁교회의 소문을 듣고 이후에 온 아이들은 너무 개혁적이라 상호 이질감을 가지고 있다.

-회원이 적다보니 적절한 관계형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교육공간이 협소해 효율적인 교육활동에 제약이 있다.

-교회 전체의 우선순위가 교회개혁, 구제, 선교지원 등 외부적인 것에 있어 교육예산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된다.

-교육예산의 열악함은 전문 교역자를 초빙하기 어렵게 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한한다.

-교인이 적고, 훈련된 직분자가 적어 교사 수급이 어렵다. 훈련된 직분자들이라도 개혁교회에서 새롭게 배우며 성장하기를 위해 교사로 헌신하지 않는다.

-소수의 헌신된 교육자들도 개혁교회의 시스템과 내용에 맞는 교회교육을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익숙지 않아 각자 경험한 기존교회 시스템과 교육내용을 접목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이유들로 인해 기존에 있던 청년들의 경우 교회가 재미없고 특별한 의미가 없어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거나, 개혁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던 청년들은 6개월에서 1년이면 교회를 다시 옮겨가는 현상이

9) 개혁교회: 여기서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네트워크에 소속한 교회들과 같이 규약/정관에 의한 민주적 교회운동을 중요시하고,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협력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10) 발제자는 언덕교회에서 집사로서 4년간 운영위원 및 감사로 일했으며, 예인교회에서 2년간 청년부 전도사를 역임하고 현재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다.

11) 여기서 '교회교육'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를 의미한다.

발생한다.¹²⁾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은 부모님과 떨어질 수 없어 예배에 참석하지만, 스스로 신앙의 성장과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적고,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염려로 부모님들도 교회를 옮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 중에도 아이들은 동네 가까운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예인교회 교육의 작은 실험

예인청년부 사역 내용

발제자가 예인교회에 온 것은 2007년 12월이었다. 청년부원은 15명 정도로 실제 모임 참석 인원은 10명 정도였다. 예배는 11시에 어른들과 함께 드리고, 오후에 별도로 모임을 갖고 있었다. 모임은 1시간 정도로 일반적인 교회와 같이 성경공부, 교제, 나눔 등으로 진행되었다. 청년들을 개인면담을 실시했는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임에 만족도가 없었고, 상당수의 청년들은 부모님만 허락하면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했다. 개중에 예인교회의 개혁적 소문을 듣고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친구는 스스로 지쳐가고 있었다.

발제자는 그 원인을 명확한 비전과 목표의 부재, 개혁적 교회에 부합하지 운영구조, 눈높이에 맞는 교육전문가의 부재 등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일관된 방향을 가진 성경공부를 통한 말씀의 공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예인청년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성경공부이다. 대학생 선교단체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제자훈련 시스템이나, 주제별 성경공부 등을 배제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권별로 공부하고 통독하는 공부를 매주일 오후 2시간씩 진행했다. 6개월 정도까지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부서활동, 셀모임 등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불멘소리가 들렸다. 부모들의 불만도 컸다. 성경공부는 셀모임이 시작된 이후 1시간을 줄여 2년 동안 계속되었고, 이 사이 성경 66권을 전체를 2번 강의하고 통독하였다.

성경공부의 결과는 컸다. 말씀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생기면서 영성과 자신감이 회복되었다.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개혁적인 성경해석은 그 자체로 청년들의 시각을 넓혀주었다. 담임목사와 운영위원회의 배려로 교사, 성가대 등 교회 봉사에서 청년들을 모두 제외시켰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성경공부 시간을 확보했고, 청년들만의 자체적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 내부적인 행사에 동원되면서 약화되었던 청년 스스로의 공동체성과 활동성이 강화되었다.

첫 1년은 발제자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데 주력했다. 예배처소인 문화센터의 장점을 살려 지역 장애우 등 500여 명을 초청했던 뮤지컬 초청공연, 지역연합 운동인 성서한국인천부천 대회 개최, 1년에 2회 개최한 친구초청 문화행사, 이런저런 교회 및 사회개혁 운동 현장에의 참여, 정기적인 독서토론 모임, 개혁적인 외부 강사 초청 강연, 흠뻑지는 예배를 통한 개혁적인 교회 방문 등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본격적으로 개혁교회에 맞는 조직구성에 착수했다. 그 시작은 회칙 개정이다. 개혁교회의 정신은 규약/정관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다. 이는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역자나 부장, 열심있는 특정인 등 소수에 의한 운영이 아니라 비전과 목표, 조직구성과 운영절차 등이 명시된 회칙에 의한 민주적 운영은 중요하다.

12) 실제 발제자가 언덕교회에서 예인교회로 옮겨온 후, 연합행사에서 1년 만에 언덕교회 청년들을 만났는데 인원은 비슷했는데 90% 가량의 회원이 바뀌어 있었다.

회칙을 기존 조직구성(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등)에서 어른들과 같이 운영위원회 구조로 바꾸었다. 기존 조직 형태를 5개 사역국(행정국, 예배국, 선교국, 사회국, 친교국)으로 바꾸고 5명의 국장이 공동리더십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5개 셀섬김이를 임명해, 사역은 국장들이 담당하고 교육 및 교제는 셀에서 이루지도록 했다. 또 회칙에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지역연합과 시대적 문제에 대한 참여 등의 방향을 명시했다. 회칙은 청년들 스스로 청년부를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비전과 목표는 분명해졌고, 행사는 다양해졌으며, 공동체성은 강화되었다. 그런 사이 청년들은 제적 44명, 출석 평균 35명가량으로 증가했다.

또 청년들이 주도하는 젊은이 예배를 독립시켰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책임지며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청년 영성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어른들과 괴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들을 심방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멘토부부를 선정해 지도하도록 했고, 월 1회 축구모임, 교회 전체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보완하였다. 개혁교회의 특성상 교회 전체 행사가 많아 월 1회 정도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고등부와와의 유기적 관계를 위해 연합예배도 진행했고, 교류하는 시골교회에 농촌봉사활동 및 수련회를 함께했다.

예인중고등부 사역 내용

발제자는 작년(2009년) 12월부터 중고등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예인 중고등부는 초등부에서 올라오는 친구들까지 포함해 28명이며, 출석률은 90% 이상이다. 그동안 위에서 열거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수적 열악하고 교육도 어려웠지만, 여러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수고로 최근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발제자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교역자에 의한 운영이 아닌, 교사들에 의한 자율적 운영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 스스로가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어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교육과 교제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교사는 교회교육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실험적으로 교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 생각했다. 교사를 집사 이상 중에서 선임했으며, 청년 중에도 충분히 검증이 되어 개인의 헌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담당교역자의 승인을 받은 친구를 참여토록 했다. 교사조직은 부장, 총무샘, 사무샘을 두고, 각 팀별 지도교사와 각 반별 담임으로 배치했다. 매주 교사보고서(출석상황, 학생상황, 분반공부 상황, 교사 개인 상황 및 기도제목 등 기재)를 올려 스스로를 점검하고, 교사 상호간 배우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등부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공과공부 시간의 확보이다. 그동안 오전11시-12시30분까지 예배 및 공과를 진행하면서 실제 분반 시간은 30분도 되지 않던 것을 전체적으로 15분 앞당겨 분반 시간을 최소 40분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반편성은 기존의 학년별 편성에서 벗어나 2개 학년을 섞어서 편성해 선후배가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 연1회 이상 반별 심방(교사와 반원들이 참여하는 가정심방)을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토록 했다.

성경통독(자체적으로 1년간 1독 하도록 작성한 라마나웃 성경읽기표)을 하도록 하면서 설교는 주간에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다. 월 1회 정도 교사설교를 배치해 선생님 개인의 삶을 간증형식으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수련회는 겨울은 말씀수련회로 3일 동안 온종일 성경공부를 시행했고, 여름은 활동수련회로 교류하는 시골교회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 1년 2회 문화 행사 형식의 친구초청행사를 진행하고, 성탄절, 부활절에는 거리찬양을 실시했다. 효율적인 찬양과 일종의 놀이를 위해 전자드럼, 신디사이저, 빔프로젝터를 구매해 지원했다. 2개월 1회 청년부와 연합예배(교회 2부 예배-오후1시30분)를 드리고 이때는 오전11시-12시30분까지 특별공과(성경공부, 특강, 독서모임, 활동모임 등)를 실시한다. 초등부와와의 유기적 관계를 위해 연 2회 연합예배를 시행한다.

이제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선부른 판단이지만 중고등부는 교사중심 교육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판단된다. 이제는 학생들 스스로가 주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개혁교회의 개혁적 교육의 필요사항 제안

위에서 제시한 개혁교회 교육의 어려움과 발제자가 경험하고 시도한 예인교회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혁교회의 교회교육 방향과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교회교육의 일관성: 교육은 어떤 내용과 방향이든 일관성을 유지함을 통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유기적 공동체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한 부서에서 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물론 연장선에서 어른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비전은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가치와 방향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목표는 단기 3년을 주기(학제가 3년인 점을 감안해)로 실제적인 성과 목표치가 있어야 한다.

-교사: 교사는 청년/대학생이나 성숙되지 않은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된다. 최소 교회 정교인 과정을 이수해 교회 핵심가치를 공유한 분들 중 은사가 있는 분들이 담당해야 한다. 청년대학생들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배워야 하고 스스로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시기이다. 필요에 따라 청년/대학생 등은 보조교사로 훈련 차원에서 참여토록 한다.

-예산: 교회 예산은 교회의 사역방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개혁교회가 “예산의 00%는 대외적 구제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라고 천명하듯이 예산 대비 일정 %를 확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혁교회가 교회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실제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교역자: 교역자는 경험이 없는 교육전도사를 실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급적 교육목사를 별도로 두어 전제(유초등부~청년부) 교회교육을 일관성 있게 지도하도록 한다. 각 부서 교육은 교역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감당하도록 하고, 교역자는 제도적 안정성과 교사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필요시 신대원생들은 학비를 지원하면서 간사로 보조하며 배우도록 한다.

-설교: 설교는 개혁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가치와 연관성 및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실제 청중(학생, 청년 등)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설교는 교역자만이 아니라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인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회칙: 회칙은 반드시 제정해 회칙에 의한 운영이 되도록 한다. 이때 교회 규약/정관에서 명시한 교회의 비전과 목적 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조직구조: 조직도 교회가 지향하는 시스템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개혁교회의 경우 선출자에 의한 민주적 공동운동을 지향하고 있음으로 각 교육부서도 이와 같은 조직구조를 지향하고 연령에 맞는 특별 사항을 추가한다.

-성경공부: 기존 교회의 성경공부를 맹목적으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적세계관에 입각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성경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성 강화: 청년부의 경우 교회안의 교회 개념으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예배, 행정으로 시작하고 점점 인사와 예산까지도 독립하도록 하면 좋겠다. 중고등부도 드러지는 헌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교회에 보고토록해서 지도하는 방식이 민주적 운영을 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부모 의식: 지금 교회교육은 학교공부, 학원공부와 경쟁한다. 개혁교회 성도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개혁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주일조차도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 아이들이 직면하게 된다. 사실 교회교육의 대상인 아이들은 부모들이 정해진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며 개인의 선택권은 제한적이다. 이를 볼 때 맘몬을 이기고, 세상적 가치를 이기려는 부모들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세미나_06]

개혁교회를 위한 청년의 역할

최현락 목사^{역삼청년교회}

교회란 무엇인가?

게하르트 로핑크에 의하면 교회는 천국적인 대조사회이다.¹³⁾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물씬 배어있어서 세상과 확연히 대조되는 사회가 바로 교회다. 예수께서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네’(마 5:14), ‘등경위에 있는 등불’(마 5:15)로 비유하신 것도 다 이런 뜻에서였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갱신을 해나가는 언약공동체인 것이다.

J. 몰트만은 교회의 본질을 선포kerygma, 친교koinonia, 봉사 diakonia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설명한다.¹⁴⁾ 이 설명의 첫 과정에서 몰트만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 거기에 교회가 있다”¹⁵⁾는 명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현존하는 자리를 현존의 약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몰트만에 따르면 신약 성서 안에는 세 개의 다른 그룹의 현존 약속들이 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타자와) 동일시하는 약속에 힘입어 사도직과 성례직과 형제다운 친교 속에 현재한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타자와) 동일시하시는 약속에 힘입어 그의 《자극히 작은 형제들》 속에 현재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그의 약속에 힘입어 그 자신의 파루시아 안에서 현재하신다.¹⁶⁾

이와 같은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몰트만은 ‘교의학적 기독교’와 ‘윤리적인 기독교’의 긴장을 해소해 보려고 시도한다. 결론적으로 몰트만은 교회의 본질과 임무를 이중적 신비로 설명한다.¹⁷⁾ 물론 몰트만에게는 교회보다는 교회를 능가하는 약속의 현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드러난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몰트만이 말하는 교회론은 윤리적인 기독교의 임무를 생각나게 한다. 이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임무를 수행함으로 증명된다. 무엇이 교회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소임을 다함으로 교회의 교회다운을 증거 해야 하는 것이다.

스티븐 모트는 「복음과 새로운 사회」에서 ‘저항세력으로서의 교회’란 도발적인 소재목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과 기능을 설명한다. 모트는 사회의 여러 구조들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역사할 수 있는 일차적인 사회 매개체를 기독교 공동체라고 주장한다.¹⁸⁾ 여기서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아닌 교회를 지시한다. 스티브 모트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즉 현재 역사상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질서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교회 그 자

13) 게르하르트 로핑크,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정한교 역, (경북: 분도출판사, 1996), p.207~222

14) J. 몰트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박봉량 외 4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p.330.

15) Ibid., p.139.

16) Ibid., p.139~140.

17) Ibid., pp.145~146.

18) 스티브 모트, 「복음과 새로운 사회」, 이문장 역, (서울: 대장간, 1992) p.180.

체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의 출발점인 동시에 목표기도 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토대 위에 건설된 새로운 사회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안에 가시화되어지는 장소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의 선봉장으로서, 인간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보여주며 또한 섬긴다. ...언약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대표하는 ‘목적 있는 사회 집단’이다.¹⁹⁾

스티브 모트는 교회를 사회 속에 존재하는 독립된 하나의 사회적 조직체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사회에 요구하시는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실현할 수 있다.²⁰⁾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곳이라면 당연히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이 드러나야 한다.

모트는 골로새서 2:9~11과 엡 2:14 그리고 갈라디아서 3:26 등의 구절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즉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새 사람을 입은 차별 없는 공동체인 교회는 새 언약의 윤리를 세상과 타협시키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 사회에 저항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규범들과 가치들을 토대로 조직된 사회 집단이기 때문이다.²¹⁾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사회는 서로 요구하는 인간성의 본질이 다르다.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인간성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성을 함양하여 세상을 교정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 그 본질을 드러내는 대조사회 공동체이다. 그 중에서도 복음의 선포(Kerygma), 사랑의 친교(Koinonia), 이웃을 향한 책임 있는 봉사(Diakonia)는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 주는 대표적인 기능이다.

이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는 각각의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다. 그러나 이 세 단어 모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복음의 선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로서 재현해내는 것과 신자의 삶으로 재현해 내는 것을 동시에 말한다. 사랑의 친교는 함께 성찬을 나누며 식탁 교제를 하는 밥상 공동체로서의 신자들의 나눔의 삶을 의미한다. 이웃을 향한 책임 있는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는 삶을 말한다. 교회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잘 보살필 것을 명령하셨다. 이 위대한 문화명령은 아담 타락이후 많이 변질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회복되었다. 이 회복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지닌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배 : 청년선교

하워드 스나이더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예배다. 그러나 예배가 너무도 자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적인 것이 되곤 한다. 예배는 선교를 위해 신자들을 구비시키고 그 자체로 세상에 대한 증거의 형태를 띠는 측면에서, 교회의 증거를 뒷받침하고 촉진한다.”²²⁾

“교회는 세상에서 기꺼이 예수님의 행동 약삭을 따르며 그분의 몸이 되고자 하여 예수님 주변으로 모인 공동체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선교 사이에는 갈등이나 긴장이 없다. 참된 예배는 선교를 이끌어낸다.”²³⁾

19) Ibid., pp.180~181.

20) Ibid., p.182.

21) Ibid., p.184.

22) 하워드 스나이더, 「교회 DNA」, 최형근 역. (서울: IVP, 2006) p.68~69

23) Ibid., p.132.

“참된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열정으로 이어진다.”²⁴⁾

“복음전파는 특히 인격적인 신앙,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마음의 결단, 거듭남,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²⁵⁾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대조사회 공동체이며, “교회의 모든 생활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²⁶⁾

개혁교회를 위한 청년의 역할 중에 첫 자리는 당연히 청년 선교를 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이 예배이고, 예배는 선교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 개혁교회에서 청년들도 이 예배의 사명과 선교의 기능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선교를 이끌어 내는 예배의 가능성이다. ‘개혁교회의 청년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청년 공동체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우리 개혁교회의 청년공동체는 답해야 한다.

흔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적다는 평가를 받곤 한다. 더불어 그 예배 또한 건조하고 뜨거운 열정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거대담론에는 강하고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은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예배와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말해보면 어려운 책을 읽으며 동시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느냐 말이다. 대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가 보면 삶을 너무 확고적으로 바라보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를 보게 된다. 이에 반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소위 개혁적인 마인드를 지닌 모임이라는 곳에 가 보면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 거리끼는 모습을 보게 된다.

물론 이런 관찰과 분석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런 모습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일이라서 솔직한 대화를 이 시간에 나눠 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실상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청년공동체가 전도에 관심을 갖기는 어렵다. 전도에 대한 관심이 적은 청년공동체는 대개 어쭙잖게 작은 것이 아름답다며 양적 성장에 대한 강한 반론을 제기하며 때때로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대형교회의 수평이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혁교회 내부의 청년공동체는 실제로 기존 교회에서 수평 이동한 청년들이 많다.

물론 수적 성장에 몰입하여 지나치게 양적인 팽창을 추구하는 변질된 행사성 전도집회는 청년들을 여러모로 힘들게 만든다. 그런 교회일수록 교회당을 크게 건축하려 하고 실제로 교회당을 무리하게 건축하고 난 이후에는 양적 성장을 위한 행사성 전도집회를 시작한다. 이 때 청년들이 주로 이 행사에 동원되어 각종 일거리를 떠맡는다.

행사에 동원되는 것까지는 참아낼 수 있지만 예산이 건축과 행사에 치중되다보니 청년들을 양육할 청년목회자는 정작 세워지지 않는다. 청년들은 몇 년을 버티다가 청년목회 시스템이 잘 마련된 대형교회 청년공동체로 발걸음을 옮긴다. 대형교회 청년공동체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너무 거대한 구조라서 인격적인 관계를

24) Ibid.

25) Ibid., p.69.

26) Ibid., p.70.

맺기가 힘들고 중심구성원이 되려면 장시간의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또다시 순례를 시작한다. 십여 년 동안 청년목회를 하면서 만나본 청년들의 교회 순례기는 대충 이러했다.

전도와 선교를 가장한 양적 성장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개혁신교회의 청년공동체는 정작 가장 중요한 사명인 청년선교에 대한 사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워드 스나이더의 분석대로 소형 교회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만 너무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복음전파의 시각이 약하고, 가정 교회는 신자들의 건강을 회복하고 '나쁜' 교회 경험들을 통해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함으로 종종 전도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²⁷⁾

개혁신교회의 청년공동체의 모습은 어떤가? 지나치게 내부자 중심적인 닫힌 공동체는 아닌가? 아직까지 상처 치유에만 몰입되어 있는 자기사랑의 공동체는 아닌가? 세상을 변혁하자는 구호는 외치지만 정작 세상 속에 영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차가운 영적 심장을 지닌 공동체는 아닌가?

청년공동체의 구조를 이제는 선교적 공동체의 구조로 변화시켜야 할 때다. 앞서 살핀 하워드 스나이더의 표현대로 '세상에서 기꺼이 예수님의 행동 약식을 따르며 그분의 몸에 되고자 하여 예수님 주변으로 모인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닌 DNA를 교회도 지녀야 할 것이다.

공동체 : 몸에 밴 민주주의의 역동성

한홍구는 「특강」에서 촛불을 든 10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나 생각 혹은 공부나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으나 민주주의가 몸에 있는 세대라고 평가했다. 자신의 세대는 머릿속에만 그 지식이 꼭 차 있었는데 10대들은 민주주의를 느끼는 감수성이 자신의 세대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것이다.²⁸⁾ 한홍구는 이것을 몸에 밴 민주주의의 역동성으로 표현했다.

바야흐로 교회는 몸에 밴 민주주의 역동성을 지닌 세대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머리로 민주주의를 알고 있는 세대가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만 해도 비민주적 교회 운영에 관한 적당한 타협과 안주가 가능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 대한 탁월한 감수성을 지닌 세대들에게 비민주적 교회 운영은 참을 수 없는 이질감으로 다가 올 것이고 교회는 그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 거세게 부딪히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머릿속 지식으로 아는 세대와 삶으로 아는 세대는 분명 다르다. 교회는 몸에 밴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지닌 세대를 통해 진정한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꾀해 나가야 한다. 이런 까닭에 교회는 그 운영의 동반자로서 청년들을 껴안아야 한다. 교회의 목회, 행정, 사역의 중요 직무에 반드시 청년대표를 참여시켜 교회가 그 본래적 기능인 복음의 선포(Kerygma), 사랑의 친교(Koinonia), 이웃을 향한 책임 있는 봉사(Diakonia)를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민족교회의 경우 교회 전체의 방향을 협의하는 교회위원회를 직분자 3명(장로 1명 권사와 안수집사 중 2명), 등대 대표 3명, 교사 대표 1명, 담임목사, 젊은이교회 청년대표 등 9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교회위원은 교인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다.

새민족교회는 규약 30조를 통해 교회위원회의 성격을 교회운영에서 기본운영 방침, 사업계획 수립, 재정운영계획, 인사, 선거관리, 목회자 청빙, 교회 전 기관과 부서에 대한 감독, 교인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기타 다른 기관

27) Ibid., p.99.

28) 한홍구, 「특강」 (서울: 한겨레출판, 2009) p.365

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를 관할하는 심의 의결기구로 정의하고 있다.²⁹⁾

대부분의 교단 산하 교회들이 교회의 전체 방향을 협의하는 협의체와 의사결정기구에 청년대표 파송을 명시하지 않는 전반적인 예에 비추어 보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청년들을 일상적이고 실질적인 교회 운영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며 목회자와 평신도의 공동 목회의 틀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은 민주적 교회 운영에 있어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 제자도

짐 월리스는 「하나님의 정치」에서 “하나님은 개인적이지만 사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인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고, ‘사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원하신다는 의미이다.³⁰⁾

월리스는 공적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적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나아가 예수님까지 거부하는 것이다. 오로지 사적이기만 한 종교는 개인적 도덕성과 성적 도덕성에만 집착할 뿐 공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망각하는 편협한 종교로 전락한다. 결국 사적 종교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의인으로 칭하는 문화종교로 전락한다.”³¹⁾

흔히 하나님의 정치를 말하면 정교분리의 원칙을 들고 나온다. 월리스는 이와 관련해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영적 가치가 흘러야 한다. 즉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선택하는 정치적 방향, 우리가 뽑는 후보들 속에 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³²⁾

월리스는 하나님의 정치를 예언자적 전통에서 찾는다. “종교가 예언자적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사회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경제적·정치적 소외 계층의 존엄성을 누가 지켜 줄 것인가? 국가들과 그 지도자들의 독선을 누가 제지할 것인가? 대안을 고민하지 않은 채 무작정 폭력과 전쟁을 동원하는 자들에게 누가 쓴소리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그 이름을 자기 정당화에 남용할 때 누가 이를 막을 것인가? 누가 사람들을 자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나쁜 행위와 음탕한 여흥과 이기적인 무관심을 꾸짖을 것인가? 예언자적인 종교는 언제나 질문을 던진다. 공의는 어디로 갔는가?”³³⁾

존 스토트는 「살아있는 교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에 대해 “그 나라의 문화”로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가치와 기준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분명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분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은 어디에서든 미워하신다(시 45:7).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게 하심은 물론, 온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그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 사회를 더 정의롭고, 더 참여적이고, 더 자유롭게 만들도록 하신다.”³⁴⁾

교회는 앞서 살펴본 스티브 모트의 분석대로 사회 속에 존재하는 독립된 하나의 사회적 조직체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대표하는 ‘목적 있는 사회 집단’이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규범과 가치를 토대로 세

29) 「2009년 교회, 길을 찾다」 민주적 운영에 관한 대안적 사례발표 좌담회 중에서 새민족교회 발제문에서 인용

30) 짐 월리스, 「하나님의 정치」, 정성목 역 (서울: 청림출판, 2008) p. 69.

31) Ibid., p.70.

32) Ibid., p.72.

33) Ibid., p.34.

34) 존 스토트, 「살아있는 교회」, 신형기 역. (서울: IVP, 2009) p.152.

위진 사회집단으로서 교회와 세상은 서로 요구하는 인간성의 본질이 다르다. 때문에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성을 함양해서 세상을 교정해 나가야 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는 대조사회 공동체인 것이다.

대조사회 일원인 개혁신교회의 청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성을 함양하기 위해 부단히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 가치관, 정치적 가치관, 환경적 가치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을 계발해 나가야 한다.

공적 제자도의 실천적 차원에 있어서 개혁신교회 청년들의 주된 소임은 먼저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공적 제자도를 훈련하는 도장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제안은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공부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학습 동아리는 잘만 운영된다면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시각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연합은 같은 이데올로기를 지닌 상호간에, 연대는 같은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지닌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개혁신교회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개혁신교회네트워크’는 다소 느슨한 교회들의 연합이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적 고백에 있어서 서로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기에 다소 느슨하지만 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연합 모임에 함께 함으로 개혁신적인 마인드를 함께 나누는 것도 개혁신교회 청년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환경과 통일 그리고 기아와 빈곤 같은 이슈들에 있어서 다양한 단체와 종파들 간에 연대를 구성해 보는 것도 공적 제자도를 배우고 익힘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어차피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라도 세상 속에서 다양한 종교와 가치관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도 서로 협력해서 엄청난 시간을 함께 하며 에너지를 쏟아 붓는데, 공적 가치를 위해 함께 협력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일하신 하나님이다(렘 25:9, 27:6). 역사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창조자이시오, 만유의 주이시다. 이 세상을 틀 잡으시고 성령님을 통해 은혜의 통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이다. 창조주의 본래 목적에 따르는 경제정의와 국제 관계 그리고 지구 보존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공적인 하나님께 대한 공적인 순종이다.

세 번째 제안은 공적 제자도에 헌신된 교회 개척이다. 개척에 있어서 좋은 모델로 미국 워싱턴 시내의 애덤스 모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해온 세이비어 교회를 추천하고 싶다. 세이비어 교회는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150여 명의 성도로 75개가 넘는 사역들을 연간 천만 달러 이상이 넘는 기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그 사역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The Potter's House- 1962년에 시작된 일반인을 위한 전도 목적의 카페와 서점으로, 매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에는 교회 사역과 연관된 각 그룹별 예배와 집회가 열린다.

Jubilee Housing-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 보급 사역으로, 현재 35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Jubilee Jobs- 직업 훈련과 직장 알선 사역으로 매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Columbia Road Health Care Center-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내 저임금 가정들을 위한 의료 진료 사역이다.

Christ House- 24시간 문을 여는, 노숙자들을 위한 의료시설이며, 치료 후에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다.

Good Shepard Ministries- 지역 내 학령기 아동들을 위하여 방과 후 학습 지도, 예능 지도, 그리고 캠프 사역 등을 하고 있다.

The Family Place- 학령 전 유아들을 위한 탁아 사역과 그들의 부모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시설이다.

Sarah's Circle- 노인들을 위한 생활복지 시설을 갖추고, 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역이다.

Samaritan's Inn-1988년에 시작되었으며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들을 집중 치료할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활 공간을 제공하며, 이들을 위한 직업 훈련을 하는 사역이다. 28일 프로그램과 1년 반의 사회 적응 훈련을 통해 95%이상의 중독자들이 완벽하게 치유되고 있다.

Festival Center- 교회의 전체적인 사무 행정을 지원하고, 입교 희망자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신앙훈련 학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와 서버트 리더십 학교를 운영하는 사역이다.³⁵⁾

단지 150명의 성도에 불과한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그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바뀐다. 짐 월리스의 표현대로 공적인 삶을 인도해 주는 도덕적 나침반, 곧 비전이 없으면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 모두다. 이때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사회를 하나로 지탱시켜 주는 것은 바로 비전이다.

월리스에 따르면 이 비전은 우리가 알아봐 주고 삶에 적용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비전은 아주 오래된 목소리인 성경 말씀들 속에 있다. 그 말씀들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예언자적·민주주의적 비전으로 다가와 바람의 방향을 바꿔 놓을 것이다.³⁶⁾ 잠자고 있는 영적 감수성과 도덕적 양심을 일깨울 성경적 비전에 헌신된 젊은이들이 대조사회 공동체인 교회를 개척하여 산위의 동네로서 드러난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선교는 없을 것이다.

향린교회는 그 정관 51조에 분가선교를 명시해 놓고 있다.³⁷⁾ 대부분의 개혁교회들도 200~300명 정도 인원이 되면 분립을 하는 것을 정관에 명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분가선교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가치를 담고 실현하는 교회를 개척해 나가기를 바란다.

오순절 이래로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의 시대 안에 있으며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갱신해 오고 계신다. 역사상 교회의 갱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교회의 주변부나 변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소수의 인식이 순식간에 다수의 인식으로 확대되는 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³⁸⁾ 이 일이 개혁교회 청년들을 통해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영적인 티핑 포인트가 개혁교회 청년들을 통해 일어나길 바라고 또 바란다.

끝맺음으로 민영진 박사의 저서 「평화 통일 희년」의 헌정사를 젊은이들에게 헌정하며 발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통일된 땅에서 사는 너희 세대에는 해마다 희년이여라³⁹⁾

35) 유성준, 「세이버 교회, 실천편」 (서울: 평단, 2006) p.76~77.

36) 짐 월리스 Ibid., p.57~62.

37) 「2009년 교회, 길을 찾다」 민주적 운영에 관한 대안적 사례발표 좌담회 중에서 향린교회 발제문에서 인용

38) 짐 월리스 Ibid., p.349.

39) 민영진, 「평화·통일·희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p.3.



•[교회다운]

- _ 운영위원장 : _ 목사 : 민 겐
_ 홈페이지 : churchdaum.onmam.com
_ 예배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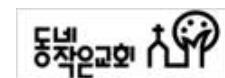
•[너머서교회] 차별을 너머서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

- _ 운영위원장 : 최우돈 장로 _ 목사 : 안해용
_ 홈페이지 : cafe.daum.net/o-t-c
_ 예배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75-3 중산초등학교 본관 5층 강당



•[동네작은교회]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사과나무이다

- _ 운영위원장 : _ 목사 : 김종일
_ 홈페이지 : club.cyworld.com/onespirit
_ 예배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981-33 서울파크빌라 지층



•[디딤돌교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신앙공동체

- _ 운영위원장 : 한진용 장로 _ 목사 : 윤선주
_ 홈페이지 : www.didimer.net
_ 예배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62-7번지 청송B/D 2F Coffeemeal 홍대점



•[언덕교회]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

- _ 운영위원장 : 김태완 장로 _ 목사 : 박득훈, 박창훈
_ 홈페이지 : www.unduk.or.kr
_ 예배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187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층 강당



•[역삼청년교회]

- _ 운영위원장 : _ 목사 : 최현락
_ 홈페이지 : www.youthchapel.org
_ 예배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54번지 중산고등학교 음악실



•[예인교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 _ 운영위원장 : 김광수 권사 _ 목사 : 정성규
_ 홈페이지 : www.yein.org
_ 예배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복사골문화센터 5층 세미나실



•[함께여는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

- _ 운영위원장 : 송건 집사 _ 목사 : 방인성
_ 홈페이지 : www.opentogether.org
_ 예배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6-6 파고다타워7층

